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상호 간에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아시아의 단결과 평화를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아시아인의 자부심과 꿈을

문자인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일본 등 강대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수동적으로만 살아갈 일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우방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내부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로운 아시아의 꿈을 꾸어야 한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일은 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과 문화적인 발전

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아시아인들의 눈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한 번만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의 꿈과 이상을 키우려는 만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어 도도하게 흘러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국립국어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외화내빈' 한국경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진단이 나왔다.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고 수출이 늘어나도 내실이 없으면 국민생활이 나아질 수 없다.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들도 잘해야 4%대 중반이고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부동산정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복지예산 지자체 부담률 차등적용 해야

재정자립도가 17.2~24.8%에 불과한 광주시 5개 구청은 내년 한 해 예산의 57.4~42%를 복지예산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같은 현상은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분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는 무관하게 국비지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부문 등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게 돼 오히려 부자 지자체와의 복지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게 뻔하다.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급속한 노령화 경향 속에 사회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고

김동화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어우러진 경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한가운데 버섯이 서 있는 나 홀로 아파트 등은 전원풍경을 해치는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천혜의 남도경관 자원화 하자

원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자원의 현주소는 실망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마을가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가장 민주적인 경관관리방안이 될 것이며, 주민에 의한 계획의 실천은 실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전라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

기고

김용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과거 산업사회시대에는 토지나 자본과 같은 유형재산이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 156억원, 인천 127억원이라 한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도별 최저 소요액인 1700여억원이라도 전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있으나 광주시 측은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도에는 980억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중 광주시의 부담액이 2006년도에 34억원, 2007년도에는 490억원이라고 한다.

기로 하겠다. 물론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교육개선에 인재양성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재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지역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가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광주포용중학교 교장·교육부교육정책지원위원〉

無等鼓

올해 초 개봉된 영화 '홀리데이'는 지난 1988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탈주범 지강현 사건을 소재로 한 액션 누아르다.

18년만에 영화로 부활된 지강현 사건의 화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지강현은 '전경원이나 보다 죄가 가볍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무줄 양형(量刑)



양형기준법 제정에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그만큼 사법정의 실현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운명은 상당 부분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무줄 판결' 시비가 어느정도 줄어들게 됐다.

양형기준법 제정에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그만큼 사법정의 실현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농기계 수리 인력 대폭 늘어났으면

트랙터로 땅을 갈다가 경기가 날이 돌부리에 걸려서 부러져 버렸다. 농기계 수리점에 갔더니 수리 기사가 얼마전에 그만뒀던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문했다. 그러나 나는 도시의 자동차 정비센터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내 여자화장실 담배꽂이에 실망

수능 성적이 나온 뒤 딸이 가려는 대학 캠퍼스를 함께 갔다.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던 아이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좁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거야 뭐라고 할수 없었으나 흡연 뒤 분별없이 아무데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것부터 배운다면 그것은 흡연만큼 나쁜 일이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